

 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-Governing Province		2020. 8. 11(화) 10:00 배포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
환경보전국	보도자료 PRESS RELEASE	산림휴양과장	이창흡	☎ 710-6760
		산림휴양팀장	지경찬	☎ 710-6761
동영상 : 있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	사진 : 있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		후속자료 : 없음

이웃과 함께 꾸미는 마을정원 주민소통 창구 역할 '톡톡'

- 제주도, 시범사업 4년째 추진...올해 제주시·서귀포시 각 2곳 조성 완료 -

- 제주특별자치도는 주민참여 마을정원 만들기 시범 공모사업을 통해 제주시와 서귀포시 각 2곳의 마을정원을 조성했다고 밝혔다.
 - 주민참여 마을정원 만들기 시범 공모사업은 녹지가 부족한 생활공간에 주민이 직접 정원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.
 - 지역주민 주도로 정원 위치선정 및 꽃가꾸기 계획을 수립하면 현장 여건·적정성에 대한 심사 후 선정 마을에 필요한 수목과 부자재 구입비(최대 900만 원)가 지원된다.
- 올해 2월 공모 결과 7개 마을이 신청한 가운데 대상지로 제주시 송당마을회와 이호동, 서귀포시 은평마을회와 표선청년회 등 4곳이 선정됐다.
 - 송당리마을회는 마을안길 교통섬 주변에 꽃길을 조성한 ‘휴(休)공간’을 마련해 주민과 관광객이 쉬어 갈수 있는 쉼터를 조성했다.
 - 이호동은 녹지가 부족한 주택가에 화단을 조성해 주민들이 직접 가꾸며 소통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.

- 표선청년회가 주축이 돼 그동안 불법 주차로 사고위험이 높았던 마을과 번영로 연결구간 공한지 주변을 꽃 화단과 녹지공간으로 꾸몄다.
- 온평마을회는 신축 마을회관 주변을 초화류 위주로 심어 주민을 위한 녹지공간을 조성해 쉼터로 제공했다.
-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된 마을정원 만들기 시범사업은 주민들의 호응 속에 올해로 4년째 이어지고 있다.
- 박근수 도 환경보전국장은 “마을정원 만들기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 화합에도 기여하고 있다”며 “녹색환경 조성을 위해 꽃가꾸기 및 나무심기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겠다”고 밝혔다.

< 관련 사진 >



제주시 송당리 마을



제주시 이호동 빌라주변

< 관련 사진 >



서귀포시 표선마을



서귀포시 은평마을